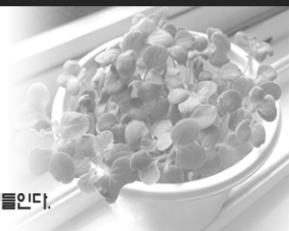




십자가의 성요한
전주교 칠보성당

겨자씨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6 가

숲속에 나무들이
일제히 낮을 씻고
환호하는 유월

6월엔 내가
빨갭게 목타는
장미가 되고

끝없는 산향기에
흠뻑 취하는
빼꾸기가 된다.

생명을 향해
하얗게 쏟아 버린
아카시아 꽃타래



6월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더욱 살아

산기슭에 옆드려
찬비 맞아도 좋은
바위가 된다.